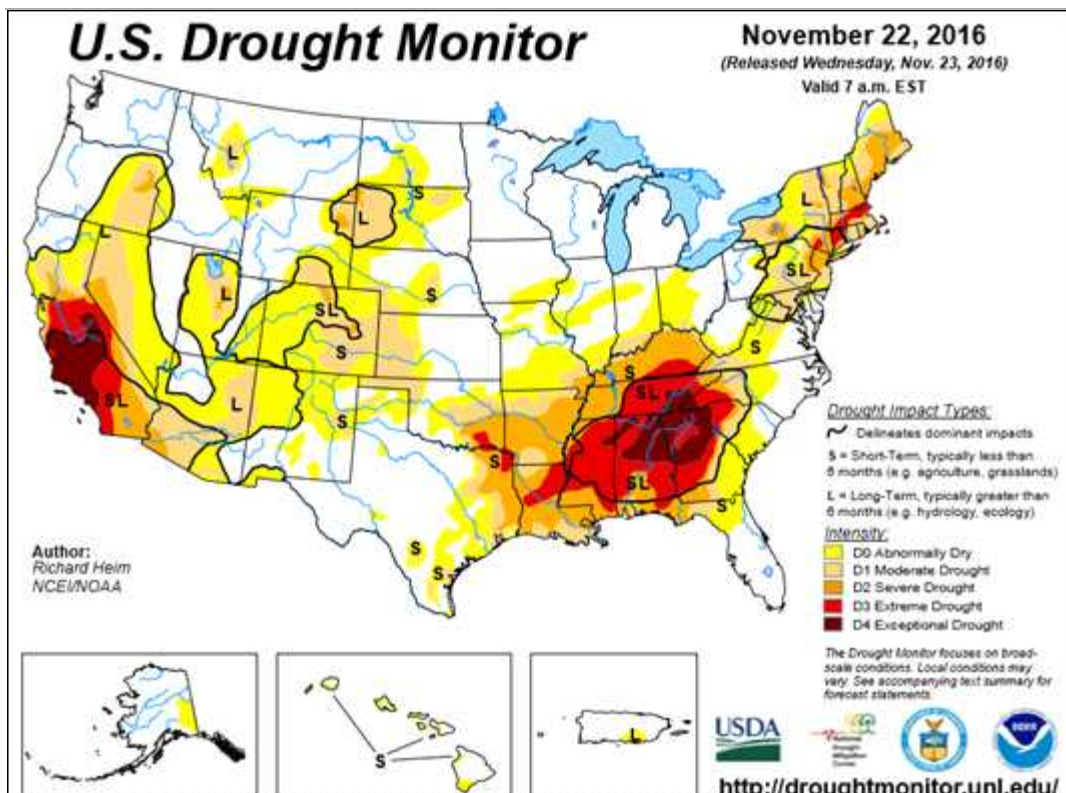


11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3, No. 49)

□ 미국 기후 현황(11/20~11/26)

남동부에서서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고 밤 동안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기도 했지만, 여전히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. 중남부에서는 1인치 이상의 비가 와서 가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. 북동부에서부터 중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흩뿌렸고, 오대호 일대에서는 주 초반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했다. 서부에서는 주 초반과 후반에 비나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다. 태평양 연안 지역을 비롯해서 캐스케이드 산맥 및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. 오레곤의 중부와 동부에서는 각각 3인치, 2.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, 캘리포니아에서도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균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, 산간 지역에서는 눈의 누적 적설량이 증가하고 있다.



## □ 농업 현황 요약(11/21~11/27)

북서부에서부터 중부 일대까지는 대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. 몬태나와 노스 다코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°F 이상 높았다. 이와 대조적으로, 동부의 1/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. 특히 북동부 및 Delta 등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내려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.

### ■ 겨울밀

11월 27일 기준 발아율은 92%인 것으로 나타났고,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이다. 18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발아율이 92%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.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%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, 이는 지난주와 같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%p 높은 수치이다.

### ■ 면화

11월 27일 기준, 전국 수확률은 77%로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7%p 낮은 수치이다. 텍사스의 Trans-Pass에서는 수확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, Edwards Plateau에서는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. 텍사스의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은 15%p 증가해 현재 62%의 수확률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4%p 낮은 수치이다.

### ■ 기타작물

11월 27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98%로,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4%p 앞서는 수치이다. 모든 지역에서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수확 진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## □ 세계 기후 현황(11/20~11/26)

■ 유럽: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한 주간 몇 차례 비가 내렸고, 누적 강우량은 10~75mm를 기록했다.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25~15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지중해 연안 일대와 프랑스 남동부 및 이탈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50~200mm 내외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 독일과 폴란드 및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3~7°C 정도 높았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추운 날씨를 보였다.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~8°C 정도 낮았고, 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겨울밀이 휴면기에 접어들었다. 우크라이나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수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. 겨울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누적 적설량이 10cm 미만의 얇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

■ 동아시아: 중국 동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겨울밀과 유채 등이 평년에 비해 일찍 휴면기에 접어들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영하 10°C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에 비해 기온이 3~5°C 정도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.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내리기도 했다. 양쯔강 및 남동부 일대에서는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주 초반에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,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. 이들 지역의 작물 생육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고 동해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호주: 주 초반 빅토리아 동부와 남호주 동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등에서는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.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수확전망도 매우 좋은 편이다.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에 비해 1°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.

■ 아르헨티나: Buenos Aires 동부에서부터 Chaco, Formos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, Salta에서부터 Cordoba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~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La Pampa, Cordoba 남부 및 Buenos Aires 북서부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, 비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.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°C 정도 낮았고,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°C 정도 높았다. 중부의 La Pampa, Buenos Aires, Santa Fe, Entre Ri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°C 후반에서 40°C 초반까지 올랐다.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, 11월 24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88%인 것으로 나타났고, 옥수수의 파종률은 44%인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들 모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. 대두의 수확률은 39%이며,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%p 낮은 수치이다. 밀의 수확률은 15%인 것으로 나타났고,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8%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.

■ 브라질: Mato Grosso, Goias 및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. Bahia 서부 일대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°C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랐다. Mato Grosso 주 정부에 따르면, 11월 24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98%인 것으로 나타났다. Mato Gross do Sul, Sao Paulo 남부 등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.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은 30°C 중반까지 올랐다.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작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